

왜 FCP 는 위임장을 달라고 하지 않는 걸까?

안녕하세요,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의 유선규 상무입니다.

KT&G 를 글로벌 회사로 만들기 위해, 여러 주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위임장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저희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조금 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KT&G 정도 규모의 회사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최소 0.5%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1월 19일에 1% 이상의 지분으로 KT&G에 여덟 가지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을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사외이사 2인 추천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황우진 전 푸르덴셜 생명보험 대표)
2. 평가보상위원회 정관 명문화
3. 인삼공사 인적분할
4. 주당 배당금 10,000원
5. 주당 자사주 매입 10,000원 (총 1.16조 필요)
6. 자사주 소각을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관 변경 (현재는 이사회 권한)
7. 자사주 소각
8.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 변경 (현재는 반기/연말 배당만 가능)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위임장을 주시겠다고, 어떻게 주면 되냐며 문의하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아직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첫번째는, 저희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법상의 필요 지분을 요건을 갖춰 주주제안을 이미 접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의 말씀은, “추후 주총 때” 의결권 위임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는 저희가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를 자문해 주시는 변호사분들로부터 “법상 허용된 기간(2월 말 또는 3월 초 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2영업일



이후 개시됨) 이전에는 위임장을 부탁하지 말아라”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호사님들 엄청 무섭습니다... 이 글도 변호사님들께 먼저 검사받고 보내고 있습니다.)

20 년동안 “주인 없는 회사”였던 KT&G 에 거버넌스를 정상화하는 중차대한 일을 앞둔 상황에서, 저희는 관련 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칫 실수하면 많은 주주분들의 염원에 폐를 끼치게 되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옳은 일을 하는 만큼, 모든 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떳떳하게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 아직까지는 위임장을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위임장 권유가 허용되는 시점(3 월 초, 중순으로 예상합니다.)에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위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KT&G 라는 회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시고, 주주제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에 저희는 주주로서 크나 큰 감사를 드리며, 마음 든든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 거버넌스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이, **저희의 여덟 가지 안건은 이미 공식 제출된 것들입니다.** 혹시나, 저희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탓에, 다른 주주분들께서 **중복으로 주총 안건을 제안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KT&G 를 발전시키자는 좋은 의도를 갖고 계셔도 중복된 안건이 주총에 올라갈 경우 혼란이 가중되고 표가 분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새로 주주제안을 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부디 저희 여덟 가지 제안 내용을 숙지하시고, 저희가 접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주 여러분들께서 기 제출된 여덟 가지 안건 외에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독자적으로 추진하셔도 좋고, 저희에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저희의 지분율로, 기한인 2 월 14 일 (법적으로, 직전 주총의 6 주전이니 계산하면 그렇게 되더군요) 까지는 여덟 가지 외 새로운 안건을 추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안건”이라고 하면, 사실 최근에, 많은 주주 분들께서 대표이사 해임 건에 대해 문의 주시는데요. 저희도 다방면으로 고려해 보았습시다만, 이번에는 대표이사 해임안을 주주제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원하는 주주로서 추후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는 3 월 주총에서는 대표이사 해임 안을 제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 여덟 가지 안건 중에는 “자사주 즉시 소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작년 10 월 캠페인 공개 후에 많은 분들께서 말씀 주신 덕분에 이번에 주총 안건으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제안하실 내용이 있다면 contact@flashlightcap.com 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착하게,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KEEP CALM, GO HIGH”

감사합니다.

유선규 드림

